

대표이사 구속된 광주FC "구단 재정 운영 문제없다"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비자금 조성 혐의 구속 기영욱 단장 "팀 전폭 지원했던 분" 선처 호소

지난주 광주FC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대표 이사를 맡고 있는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2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다. 2013년 6월 광주FC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팀이 K리그 클래식(1부리그)으로 복귀하기까지 몰입으로 지원했던 정 사장의 구속으로 구단 사무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정 사장은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광주FC를 지원하는 힘과 같았다. 기업인인 그는 광주FC의 대표이사를 맡아 축구와 인연을 맺은 뒤 많은 애정을 쏟았다. 지난해 광주FC의 클래식 승격이 확정됐을 때도 사비를 털어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 시즌 초반 광주가 예산 부족으로 힘들었을 때도 중흥건설을 통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내놓았다. 그뿐 아니다. 정 사장은 광주시의 직·간접적 프로축구단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 체육회, 의회 관계자들과 유대관계를 맺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정 사장의 다양한 노력으로 광주FC는 재정적으로 힘든 고비를 넘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광주FC 기영욱 단장은 26일 목포축구센터에서 열린 FC서울과의 K리그 클래식 8라운드 홈경기에 앞서 "대표이사가 구단에 엄청난 애정을 쏟아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팀을 위해 많이 공헌하셨고, 선수들과도 가족처럼 지내셨던 분이요. 그래서 선수단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역에서도 크게 공헌하신 분이요 이곳 저곳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는 움직임이 있다. 무사히 돌아오실 것으로 믿는다"고 바랐다. 기 단장은 "안 좋은 일을 예상하셨는지 구단 재정이 힘들지 않도록 여러 부분에서 많은 일을 직접 해놓으셨다. 구단 운영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영 언론 "기성용의 스완지, 한국투어 희망"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26일(한국시간)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가 기성용(26)의 인기를 바탕으로 돈을 벌기 위해 프리시즌 일부를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내길 희망한다. 한국 대표팀 주장인 기성용과 그의 아내인 한혜진은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들"이라며 기성용의 소속팀 스완지시티가 오프시즌에 한국을 방문해 친선경기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성용은 25일 뉴캐슬전에 교체 출장해 팀의 3-2 승리에 힘을 보탰다(사진).

손흥민, 킬러전 출전... 공격포인트는 기록 못해

손흥민(23·레버쿠젠)이 25일(한국시간) FC 쾰른과의 2014~201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출전해 후반 9분까지 54분을 소화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전반 24분에는 경고도 한 장 받았다. 레버쿠젠은 1-1로 비겨 연승행진을 7경기에서 마감했다. 아우크스부르크 홍정호(26)와 지동원(24)은 각각 선발과 교체로 합부르크 원정경기에서 출전했다. 팀은 2-3으로 패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이청용 EPL 복귀 "난 이제 시작이다"

통신원 리포트

헬시티 상대 팰리스 데뷔전... 0-2패 "막판 실수 아쉬움... 남은 시즌에 최선" 현지 팬들 기대감... 경기후 사인 쇠도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이 25일(한국시간) 새 팀에서 데뷔전을 치른 뒤 자신의 유니폼을 직접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블루 드래곤' 이청용(27)이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크리스탈 팰리스 데뷔전을 치렀다.

이청용은 25일(한국시간) 런던 셀허스트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헬시티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4라운드 홈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겨울 이적시장 때 크리스탈 팰리스에 입단한 이후 처음으로 엔트리에 포함된 그는 후반 19분 교체투입돼 약 3년 만에 EPL 경기에 출장했다. 31분간의 짧은 출전이었지만, 현지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기엔 충분한 경기력을 보였다.

경기 전 홈구장 아나운서가 라인업을 소개하며 "셀허스트파크에 온 걸 환영합니다! 이청용!"이라고 외치자, 홈팬들의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이청용도 경기 시작 전 어린이 팬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등 밝은 모습이였다. 이청용은 0-1로 뒤진

가운데 교체투입돼 적극적 패시 플레이로 공격을 이끌면서도 중원에 안정감을 심어줬다. 후반 막판 중원에서 불을 뿜어줘 헬시티의 2번째 골로 이어지는 아쉬운 장면도 낳았지만, 센스 있는 패스로 공격수 야야 사노고에게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 헬시티에 0-2로 패해 리그 11위를 기록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5월 3일 리그 선두

첼시와 원정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가장 인기를 끈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는 이청용이었다. 잇단 인터뷰로 한참 뒤에야 믹스트존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현지 팬들과 한국 팬들에게서 수많은 사인과 사진 요청을 받았다. 다음은 이청용과의 일문일답.

-크리스탈 팰리스 데뷔전이었다. 소감은?

"이곳에 온 후 첫 1군 경기였고, 오랜만에 뛰어서 좋지만, 결과와 막판 실수도 많이 아쉽다. 내에게는 이제 시작이고, 남은 시즌 몇 경기만 안 남았는데 잘해서 시즌을 좋게 마무리하겠다."

-부상 때문에 이적 후 한동안 못 뛰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

"부상 부위는 이제 완치된 상태다. 3개월간 쉬었기 때문에 아직 경기를 더 뛰어야 하지만, 체력적인 부분은 동료 선수들을 따라가고 있고 컨디션도 좋다. 쉬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앨런 파듀 감독이 따로 해준 말이 있나?

"팀이 강등권과 싸우고 있던 않지만, 남은 경기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남은 일정 동안 쉽지 않은 팀들을 상대하는데, 좋은 경기력으로 매 경기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다. 오늘 경기에서 후반에 들어가기 전 팀이 지고 있어서 나에게 '중요해서 패스 연결을 해 달라'고 지시하셨다."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은 현지에서도 유독 열성적인 것으로 유명한데 첫 홈경기 느낌은 어떤가?

"팬들이 계속 응원해주고 경기장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 많은 분들이 박수쳐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아 감사했다. 한국에 계신 팬들도, 크리스탈 팰리스 팬들도 오랫동안 경기에 나오지 않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뛰었지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없었다. 앞으로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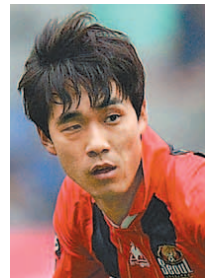
-이번 시즌은 막판이지만 다음 시즌은 목표가 무언가?

"내가 팀에 오고 느낀 점은 우선 경쟁선수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모두 실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나오신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팀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한국에 계신 팬들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박주영, K리그 복귀후 첫 결장

오른쪽 무릎 부상...광주전 제외



박주영(30·FC서울·사진)이 부상으로 K리그 클래식(1부리그) 복귀 이후 처음으로 결장했다.

박주영은 26일 목포 축구센터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8라운드 광주FC와의 원정경기 출전선수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광주전을 앞두고 팀 훈련을 마친 뒤 오른쪽 무릎이 부어올라 이번 원정에 데려오지 않았다. 큰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확인해 주중 FA컵 출전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서울은 29일 내셔널리그(3부리그) 경주 한국수력원자력과 FA컵 32강전을 치른다.

박주영은 3월 서울로 복귀한 이후 이달부터 클래식 경기를 모두 뛰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정식으로 등록되지 못해 챔피언스리그에는 참가할 수 없는 만큼 K리그에 전념해왔다. 이달 4일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K리그 복귀전을 치렀고, 18일 수원과의 원정경기까지 총 4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했다. 최 감독은 "박주영이 복귀 이후 모든 훈련과 경기를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오른쪽 무릎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심리적 부분과 휴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목포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드디어 이겼다"...1무6패 대전의 감격 첫 승. 감격적인 시즌 첫 승리다. 대전 선수들이 2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2-1로 이긴 뒤 울먹이고 있다. 개막 후 1무6패를 기록했던 대전은 8번째 도전 만에 첫 승을 신고했다. 수원 | 김진환 기자 kwangshin@donga.com

중국 프로축구가 부쩍 가까워진 이유

김영권·박종우 등 전·현직 태극전사들 1부리그 16개 클럽중 9개팀서 맹활약 중 축구인 "한국선수 책임감 남다르다"

중국프로축구. 한때는 아주 낯설었다. 몇몇 축구인들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으로 향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동아시아에선 한국 K리그와 일본 J리그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제 그 판이 깨졌다. 더 이상 중국을 '축구 변방'이라 하지 않는다. 특급 용병 영입으로 대변되는, 막강 재력을 지닌 신흥 부호들의 전폭적 투자와 국가 차원의 남다른 관심으로 중국축구는 프로부터 강세를 떨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중국축구가 한층 가까게 느껴지도록 한 계기가 생겼다. 국내 선수들의 연이은 '러시드'. 얼마 전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국수퍼리그(1부리그) 16개 클럽 중 9개 팀에 10명의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다.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는 상하이 상강과 광저우 에버그란데에 각각 김주영(27), 김영권(25)이 몸담고 있고, 베이징 궈안과 광저우 푸리에 각각 하대성(30), 장현수(24)·박종우(26)가 활약 중이다. 대부분이 2012런던올림픽부터 2014브라질월드컵까지 최근 한국축구의 영광과 아픔을 함께 했던 전·현직 태극전사들이다.

국가대표급 선수는 또 있다. 지난해 갑리그(2부리그)에서 1부로 승격한 스자좡 용창에 입단한 조용형(32)이다. 2010남아공월드컵과 2011카타르아시아인접 등을 경험하며 이름을 날린 그는 카타르에서 활약하다 중국에서 조용하지만 알찬 행보를 하고 있다. 그 외에 허난 전에(정인환·29), 상하이 선신(임우환·32), 귀저우 런허(박주성·31), 랴오닝 흥원(김유진·32) 등도 한국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다수가 수비수다. 미드필더 하대성, 박종우와 달리 대부분의 역할이 뒷만 담당이다. 최근 K리그가 수비수 기근 현상에 시달리는 이유가 핵심 자원들의 중국행 때문인 것으로



24일 스자좡에서 열린 스자좡 용창과 톈진 테더의 중국수퍼리그 경기. 수퍼리그에는 10명의 한국 선수들이 뛰고 있다. 스자좡(중국) | 남정현 기자

풀이할 수 있다. 한 중국 축구인은 "중국에서 한국 선수의 인상이 좋다. 자기관리와 남다른 책임의식 때문"이라며 "중국은 최전방과 공격 2선에 힘을 쏟는 기본 용병 쿼터(3장)와는 달리 아시아 쿼터로는 강한 기질의 한국 선수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양국간 거리를 좁힌 또 다른 케이스도 있다. K리그를 누빈 용병들의 중국행과 국내

축구인들의 갑리그 진출이다. FC서울에서 뛴 데안(34·베이징 궈안)과 전북현대에서 활약한 황보원(28)·평사오팅(30·이상 광저우 에버그란데), 과거 수원삼성에서 전성기를 보낸 중국 '레전드' 리웨이펑(37)이 전자이고, 연변FC 박태하(47) 감독과 하대성(28), 선전 위윈 이임생(44) 감독 등이 후자다. 스자좡(중국)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나눔 Lotto 6/45 당첨번호

제 647 회 Lotto 6/45 당첨번호										
당첨번호						2등 보너스 숫자				
5	16	21	23	24	30	29				
1등 총 당첨금										
1	5	3	2	8	0	7	9	2	5	6
*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금의 50% 이상입니다. 1등 당첨금은 총 판매금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및 당첨자수	당첨금액(만)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 일치	7명	2,189,725,608			총 당첨금 중 45%와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 일치	44명	58,060,907			총 당첨금 중 45%와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4개 숫자 일치	1,596명	1,600,677			총 당첨금 중 45%와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3개 숫자 일치	79,202명	50,000			50,000원				
5등	2개 숫자 일치	1,351,926명	5,000			5,000원				
* 상가 당첨금은 1개당 100만원입니다. (세금 공제 전)										
* 추첨일 : 2015. 4. 25										
*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lotto.co.kr										

로또 구입시 • 로또구매는 일확천금의 요령이 아니라 가벼운 오락 및 기쁨이며, 자신과 가족에게는 도박중독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복권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